

四象體質分類檢査(QSCC)의 妥當化研究

金 善 豪^{*} · 高 炳 熙^{*} · 宋 一 炳^{*}

I. 緒 論

四象醫學이란 體質醫學으로서 東武 李濟馬(1837-1900)가 東醫壽世保元(1901)에서 主張한 학설인데, 人間의 體質을 太陽, 少陽, 少陰, 太陰으로 나누고 각 體質에 따른 獨特한 生理 및 病理說에 依據하여 疾病을 治療하는 새로운 學說이다. 四象醫學은 疾病을 治療함에 있어서 藥物만으로 治療하는 것이 아니라, 先天的인 體質의 長短點에 따른 性情의 調節과 飲食選擇을 藥物服用과 함께 함으로써 外形의 肉體와 精神을 調和하게 되면 疾病이 治療된다는 劃期的인 學說이다.

그러므로 四象醫學을 臨床에 應用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人間의 體質鑑別이라 할 수 있는데, 東武公은 體質鑑別의 內容으로서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藏腑論, 醫源論, 四象人辨證論과 格致藥等에 言及한 바 있으나, 그 內容을 包括의으로 敘述하여 客觀的인 體質 鑑別 條件에 對한 具體的인 言及은 有意而無言한 狀態이다. 但 全體的인 內容을 考慮할 때 體質의 鑑別은 脈이나 經絡으로서는 不可하며, 오로지 性命論에 敘述되어 있는 體質의 形成原理부터 喜怒哀樂과 體質의 關係, 四象人과 臟腑의 關係,

臟腑의 生成原理, 四象人의 疾病 生成理致 등을 알고, 精神과 肉體가 一致되어 나타내는 全體的인 相을 綿密히 觀察해야만 正確하게 體質을 鑑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結局 體質鑑別의 重要한 點은 大體로 肉體의 體型과 精神의 氣質로 歸結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體質鑑別에 어떤 客觀性을 賦與하기 爲해 朴⁸의 頭部觸診法, 李³의 乳房 및 腸骨尺度法, 太極鍼法, 權¹의 乳臍尺度法, 朴²의 十種鑑別法, 權⁹의 八體質鍼法과 診斷脈法, 許¹³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關한 研究가 發表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既存의 研究는 心理的, 精神의 要素가 缺如되어 있고, 實際로 臨床에 適用하기에는 不足한 面이 많으며, 東醫壽世保元의 內容과 얼마나 一致하고 있는가 하는 面이 再考되어야 할 事項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筆者는 精神的, 心理的 要素를 包含하여 臨床的으로 應用이 可能한 客觀的인 基準을 마련하고자, 四象體質鑑別의 核心인 性情을 爲主로 한 體質鑑別法을 開發하였다. 設問紙를 통한 調査는 對象者의 體質을 正確하게 反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大略的인 水準과 分類等의 目的으로 많이 使用되고 있는 것임을 勘案하여 體質鑑別의 科學化를 爲해서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敎室

는 設問形式의 收容이 必要한 것으로 生覺하게 되었다. 이러한 試圖의 一環으로서, 既存의 臨床心理學科와 神經精神科에서 心理分析을 爲해 效果的인 方法으로서 널리 使用되고 있는 것이 設問調查 方法이므로, 設問調查 方式을 應用한 四象體質分類檢査(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QSCC))를 開發하였고, QSCC 結果를 分析하는 方法을 開發하여, 若干은 客觀化되고 體系化된 體質鑑別法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QSCC로 1992年 2月 부터 4月 까지 約 3個月間 慶熙醫院院 韓方病院과 個人 韓醫院에 來院한 患者 및 大學生을 對象으로 設問調查를 實施하고, 이들로부터 나온 結果를 統計分析하여 몇가지 結論과 多少의 智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1. 研究設計

本 研究는 非實驗 研究(non-experimental design)로 四象人의 體質鑑別을 爲한 設問 調查 研究이다.

2. 새로운 研究道具 構成을 爲한 豫備研究 및 QSCC의 製作過程

設問紙型 自己報告式 檢査를 製作하는 方法에는 理性的 接近方法과 經驗的 接近方法이 있다. 理論的 根據에 基礎하여 檢査問項을 構成하는 것이 理性的 接近 方法이고, 다른 比較集團과 다르게 反應하는 特定 集團의 應答方向을 統計的으로 檢證하여 問項을 構成하는 것이 經驗的 接近方法인데, 이 둘 두가지의 接近法에는 各其 長短點이 있다. 이러한 두가지 方式들로 構成된 設問 問項에 대한 被檢者의 應答 內容은 應答者가 主觀的으로 知覺하고 生

覺하는 自己 陳述이므로 實際 行動과는 다를 수도 있겠으나, 特定 集團의 應答 方向에 一致性이 存在한다면 特定 體質의 分類라는 診斷的 側面에서 有用한 情報을 提供할 수 있다. 그러므로 QSCC는 이 둘 두가지 方法을 모두 活用하여 作成 되었으며, 두가지 設問 作成 方法 上의 長短點을 補完하기 위한 試圖을 包含시켰다.

一次的으로 理性的 自己報告式 檢査의 製作 段階로 四象體質分類檢査(QSCC)의 問項選定 方法에 있어 金¹⁾의 四象體質鑑別을 爲한 基礎研究에서 나온 東醫壽世保元과 格致藥 上의 原文을 翻譯하고 問項을 選擇하여 數次例에 걸쳐 豫備研究 統計分析을 實施하여 四象體質을 分類하는데 不適格한 것으로 暫定的으로 決定된 問項과 問項의 反應頻度가 매우 낮은 問項(反應頻도가 10%未滿의 問項)을 分類하였다. 이 結果를 土臺로 著者를 包含하여 韓醫師 4名, 臨床心理學者 1名이 體質分類에 客觀性이 있다고 認定되는 問項과 위의 作業에서 分類된 問項들을 가지고 問項別로 原文과 對照하면서 討論을 하여 問項들을 다듬었다. 問項配列法은 循環法을 使用하여 被檢者로 하여금 反復感을 덜 느끼도록 하였다. 나아가서 理論的 自己報告式檢査의 短點인 被檢者 態度에 의한 歪曲 및 虛偽應答 與否의 感知不能을 補完하기 爲하여, 設問調查 當時 被檢者의 受檢態도와 關聯된 無作爲 反應 및 動機 歪曲反應을 把握하는 尺度를 添加하여 좀 더 높은 信賴度¹⁾를 確立하고자 하였다. 無作爲 尺度와 動機歪曲 尺度는 表1에 提示하였다.

表1. QSCC에 包含되어 있는 無作爲 尺度 및 動機歪曲 尺度

-
- 31.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
 - 40. 나는 무슨 일이건 철저히 하는 성미다.
 - 45.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 46. 이것저것 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 52.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
- 53.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 66. 일 할때 주위에서 어지간히 소란해도 잘 할 수 있다.
- 71. 사람을 설득 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온다.

設問 應答 方式은 既存에 心理學 等の 分野에서 여러가지 多様な 方式이 研究되어 各各의 長短點이 比較 研究되어 있으나 結果에 그다지 重要的인 影響을 주지않는 것으로 思料되어 設問 調査課程에서 不必要한 時間의 遺遙로 因한 無作爲 應答을 避하고자 O X 方式을 選擇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四象體質分類檢査(QSCC)를 土臺로 하여 二次的으로 經驗的 接近 方法을 適用키 爲해서는 總 241名에게 設問調査를 實施한 다음 各體質尺度에 屬하는 問項에 對해 統計的으로 問項分析을 實施하여 大部分의 사람이 應答하지 않는 問項이나, 各 尺度 點數와의 相關關係로 救해지는 問項適格度에 屬하는 問項에 對해 統計的으로 問項分析을 實施하여 大部分의 사람이 應答하지 않는 問項이나, 各 尺度 點數와의 相關關係로 救해지는 問項適格度²⁾가 否定的이거나, 거의 相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問項을 除去하였다. 그런 다음, 다시 東醫壽世保元 原文에는 없지만 統計的 檢證 結果에서 全體 問項과의 相關을 救해 0.40 以上の 높은 相關을 보이는 問項을 追加하고 다시 問項分析을 하여 問項適格度가 0.15% 以上이 되는 問項만을 選擇하

여 最終 分析問項에 包含시켰다.

各 體質別 尺度에 該當되는 問項을 分類함에 있어서, 다른 體質의 分類를 目的으로 選定되었던 問項 中 오직 特定 體質에 屬하는 사람들만이 다른 集團과 다르게 應答한 問項을 그 問項의 本來 目的과는 다르게, 離脫反應으로 採點되는 問項으로 指定하여 特定 體質의 尺度로 再 分類시켰다.

그리고 QSCC 全體 問項 中 體格에 對한 問項과, 身體部位의 病變에 對한 問項은 全體 設問紙의 妥當度³⁾를 低下시키는 要因으로 보고 除去하였는데, 이 部分 즉 體位를 包含하고도 準據 妥當度를 높일 수 있는 方法에 對한 研究가 追後에 繼續되어서 公式化 되어야 할 部分이라 보겠다.

따라서 本 論文의 結果 分析에 使用된 問項들은 附錄에 收錄된 QSCC 中에서 體質分類 尺度로 不適格하거나, 反應頻度가 낮거나, 相關係數가 낮은 問項을 除去한 후 拔萃한 것들이며, 本 研究는 이들 問項만을 가지고 統計 處理하였다.

3. 研究對象, 期間 및 資料收集 方法

開發된 QSCC의 信賴度 및 妥當度 研究를 爲하여 慶熙大學校 附屬 漢方病院 四象醫學科 및 地方所在 個人 韓醫院에 來院한 一般 患者를 對象으로, 設問紙에 應答이 可能한 對象者를 選定한 후, 調査에 應하겠다는 同意를 얻은 105名의 患者와 大學生 136名을 對象으로 QSCC를 實施하였다. 設問調査時에는 實施 要領을 仔細히 說明하여 檢査者의 指示나, 說明을 不必要하게 함으로써 檢査者의 影響을 排除한 實施客觀性을 確保하였다. 設問紙의 檢査再檢査 信賴度 分析을 爲하여 1次 檢査後 2週日이 經過한 다음 同一人 220名을 對象으로 2次 檢査를 實施하였다. 檢査 對象者 中 男子는 147名이었으며 女子는 94名으로 總 241名이었다.

期間은 1992年 2月부터 4月 20日까지 約 3個月이 經過되었다.

4. 資料分析 方法

QSCC의 信賴度 檢證 및 問項 分析을 하기 爲해서는 spss pc v3.0 分析 프로그램으로 信賴度を 分析하였다.

經驗的 接近法을 통해 製作된 檢査에 必需的으로 必要한 事項인 診斷準據에 의한 尺度의 妥當度 檢證과 各 問項의 辨別力에 依한 經驗的 妥當度 檢證을 爲해서, 즉 診斷辨別力에 依한 準據妥當度 檢證을 爲해서는, 韓方 專門醫가 診斷한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 集團과 各 尺度別 平均, 標準偏差 및 尺度 點數別 平均差異를 變量分析(ANOVA)하여 F값을 敍하였다. 韓方 專門醫에 依해 診斷된 體質中에서 太陽人으로 診斷받은 境遇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 太陽人에 對한 分析은 施行되지 못하였다.

變量分析의 過程에서는 男女 集團別 4個 尺度 間의 相關係數를 分析한 結果, 女子의 境遇 少陽 尺度가 少陰人 女子에게서 보다 자주 表示되는 等 理論的으로 期待되었던 相關 構造를 갖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서, 辨別이 잘 成立되지 않는 女子는 除外를 하고 男子들의 設問紙만을 對象으로 統計分析 하였다.

個別 集團差異를 알아보기 爲하여 Scheffe 檢證을 하였다.

또한 診斷正確率을 檢證하기 爲하여 判別分析을 實施하였다.

各 尺度의 關係性 및 特性을 알아보기 爲해 Pearson 相關係數(coefficient of Pearson correlation)을 敍하였다.

III. 研究結果 및 論議

1. 研究 對象者의 一般的인 特性

本 研究에 包含된 事例들의 人口統計學的 分布를

表1, 表2, 表3, 表4에 提示하였다.

表1. 性別에 따른 教育程度

性別 學歷	男	女	合計
國卒以下		8 (8.5)	8 (3.3)
中 卒	3 (2.0)	11 (11.7)	14 (5.8)
高 卒	24 (16.3)	28 (29.8)	52 (21.6)
大學以上	120 (81.0)	47 (48.9)	167 (69.3)
合 計	147 (61.0)	94 (39.0)	241 (100.0)

事例數(百分率)

表1. 에서 性別에 따른 教育 程度를 보면, 國卒은 全體 241名 中 女子가 8名으로 8.5%에 該當하였고, 男子는 한 名도 없었다. 中卒은 男子가 2.0%, 女子는 11.7%였으며, 高卒은 남자 16.3%, 女子 29.8%였고, 大學以上の 學歷은 男子 81%, 女子 48.9%였다.

性別에 따른 結婚狀態는 表2.에 提示하였다. 本 研究의 調查 對象에서 既婚은 39.8%였고, 未婚은 57%였다.

表2. 性別에 따른 結婚

結婚狀態 性別	既婚	未婚	別居	死別	離婚	同居	合
男	48 48.5 31.6	101 71.1 66.4	1 50.0 .7	1 25.0 .7	1 100 .7		152 61.0
女	51 51.5 52.6	41 28.9 42.3	1 50.0 1.0	3 75.0 3.1		1 100.0 1.0	97 39.0
合	99 39.8	142 57	2 .8	4 1.6	1 .4	1 .4	249 100.0

職業別 分布에서는 學生 및 無職이 全體의 40.1%

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醫療保健職과 主婦가
各各 15.2%, 14.1%로 많았다. 職業別 分布는 表3.
에 提示하였다.

診斷된 四象體質의 分布에서는 男子의 境遇 太
陰人이 42.9%, 少陰人이 38.1%, 少陽人이, 19%의
順序였고, 女子의 境遇 太陰人과 少陰人이 41.2%,
少陽人이 19% 順으로 나타났다. 全體的으로 살펴
보면, 太陰人이 42.4%로 가장 많았고, 少陰人은
39%, 少陽人은 18.6% 順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分布는 東醫壽世保元에서 東武公이 言及한 內容,

즉 한 고을에 人口가 萬名일 境遇 太陰人이 五
千名, 少陽人이 三千名, 少陰人이 二千名 이라고
敘述한 內容과는 많은 差異가 있는데, 이것은 보
다 많은 對象을 調査하여 比較 研究해 보아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韓方 專門醫에 依해 診斷
된 體質 中에서 太陽人으로 診斷 받은 境遇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 太陽人에 對한 分析은 施
行되지 못 하였다. 診斷된 四象體質의 分布는 表
4에 提示하였다.

表 3. 性別에 따른 職業 分布

男女	職業	事務職 및 行政職	研究 및 專門職	私企業 經營	醫療 保健職	工業 및 技術職	宗教 關係職	
	男		11 84.6 6.6	13 37.1 7.8	12 100.0 7.2	27 65.9 16.2	4 100.0 2.4	1 100.0 .6
女		2 15.4 2.0	22 62.9 21.6		14 34.1 13.7			
合		13 4.8	35 13.0	12 4.5	41 15.2	4 1.5	1 0.4	
男女	職業	農水産業	藝術 및 體育	서비스職	主婦	單純 勞務職	學生 및 無職	合
	男	2 100.0 1.2	2 66.7 .2	5 50.0 7.0		1 50.0 .6	89 82.4 53.3	167 62.1
女			1 33.3 1.0	5 50.0 4.9	38 100.0 37.3	1 50.0 1.0	19 17.6 18.6	102 39.9
合		2 0.7	3 1.1	10 3.7	38 14.1	2 0.7	108 40.1	269 100

表 4. 性別에 따른 診斷된 四象體質 分布

男女	診斷된 體質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	合
	男		18 72.0 42.9	8 72.7 19.0	16 69.6 38.1
女		7 28.0 41.2	3 27.3 17.6	7 30.4 41.2	17 28.8
合		25 42.4	11 18.6	23 39.0	59 100

2. 體質辨別力이 높은 問項의 尺度別 分類

問項辨別力 檢證을 통해 問項適格度가 .15 以上으로 나온 問項들을 各 尺度別 問項番號, 問項內容 및 問項適格度와 함께 整理하여 表6, 表7, 表8, 表9에 提示하였고, 離脫反應으로 採點되는 方向의 問項도 함께 提示하였다. 太陽人 尺度에 該當되는 問項으로 分類된 것이 16個 問項, 少陽人 尺度가 17問項, 太陰人 尺度가 10問項, 少陰人 尺度가 10問項이었으며, 太陽人에서는 1個 問項 太陰人에서는 2個 問項, 少陰人에서는 3個 問項이 ‘아니오’ 라고 應答했을 때 離脫反應으로 採點되었다. 이러한 問項들은 새로운 尺度이므로 各 尺度의 經驗的 妥當化檢證이 要望된다.

問項과 全體間의 相關係數로 表示되는 問項適格度는 .15:以上이면 適當하지만, 各 體質 尺度別 問項 中에서도 問項適格度가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이 어떤 것들인가를 알아 보고자 따로 表를 만들어서 表5.에 提示하였다.

太陽人 尺度의 問項 中 問項適格度가 가장 높은 것은 “58. 예의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이고, 問項適格度가 가장 낮은 것은 “41. 항상 성급한 편이다.”이었다. 少陽人 尺度의 問項 中 問項適格度가 가장 높은 것은 “33. 사람을 볼때 우선 학력을 본다.”이고, 가장 낮은 것은 “99. 시원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이었다. 太陰人 尺度의 問項 中 問項適格度가 가장 높은 것은 “93.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이고, 가장 낮은 것은 “74. 남의 것을 탐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이다. 少陰人 尺度의 問項 中 問項適格度가 가장 높은 것은 “44.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51.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이고, 가장 낮은 것은 “13. 단정하며 꼼꼼하다.”이었다.

問項 16번은 太陽人 尺度로서의 問項適格度는 .49로서 높은 便이었고, 太陰人 尺度로서의 問項適格度는 “아니오”로 採點되었을 때 .21로서 낮은 便이었다.

表 5. 各 體質別 問項適格度가 가장 높은 문항과 가장 낮은 문항

太陽人	문항適格度가 가장 높은 문항 58. 예의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0.59)
少陽人	33. 사람을 볼때 우선 학력을 본다.(0.58)
太陰人	93.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0.58)
少陰人	44.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0.51) 51.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0.51)
太陽人	문항適格度가 가장 낮은 문항 41. 항상 성급한 편이다.(0.20)
少陽人	99. 시원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0.24)
太陰人	74. 나의 일이 아닌 것에는 무관심한 편이다.(0.19) 78. 남의 것을 탐내는 경우가 종종있다. (0.19)
少陰人	13. 단정하며 꼼꼼하다.(0.24)

表 6. 太陽尺度의 內容 및 問項適格度

番 號	問 項 內 容	問項適格도와 採點方向
15.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58
16.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귀는 편이다.	.49
23.	친구 사귄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귄다.	.45
27.	포용력이 있어서 잘 받아 들이는 편이다.	.22
31.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	.50
36.	무슨 일이든지 물려서지 않고 밀고 나간다.	.48
38.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28 아니오
41.	항상 성급한 편이다.	.20
47.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43
48.	친구는 많지만 막상 속을 터놓을 사람은 없어 속상할 때가 많다.	.27
58.	예의 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59
62.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편이다.	.46
72.	그다지 공손하지 않은 편이다.	.35
89.	나는 너무 예의 차리는 사람을 꺼린다.	.40
99.	시원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28
101.	평소 손, 발이 따뜻한 편이다.	.29

表 7. 少陽尺度의 內容 및 問項適格度

番 號	問 項 內 容	問項適格도와 採點方向
11.	민첩하고 용감하다.	.56
17.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54
18.	매사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편이다.	.41
33.	사람을 볼때 우선 학력을 본다.	.58
37.	일을 벌려 놓기만 하지 마무리를 잘하지 못한다.	.33
42.	일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	.32
47.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35
49.	밖으로 나들다 보니 집안에 문제가 많다.	.53
59.	아는 척 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	.36
63.	매사에 능수능란한 편이다.	.50
68.	자신은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남을 소홀히 여기는 편이다.	.37
73.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편이다.	.45
76.	남의 생각이나 업적을 내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32
77.	남을 업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31
86.	남의 일에 열심이면서도 항상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43
91.	나는 너무 의리를 내세우는 사람을 꺼린다.	.37
99.	시원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24

表 8. 太陰尺度의 內容 및 問項適格度

番 號	問 項 內 容	問項適格度와 採點方向
16.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귀는 편이다.	.21아니오
20.	진득하게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	.31
38.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53
43.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50
53.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45
64.	점잖은 척 할 때가 많다.	.21
74.	나의 일이 아닌 것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19
78.	남의 것을 탐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19
93.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	.58
101.	평소 손, 발이 따뜻한 편이다.	.24아니오

表 9. 少陰尺度의 內容 및 問項適格度

番 號	問 項 內 容	問項適格度와 採點方向
13.	단정하며 꼼꼼하다.	.24
21.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32
23.	친구 사귄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귀다.	.39 아니오
26.	친구를 사귄데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	.48
27.	포용력이 있어서 잘 받아 들이는 편이다.	.34 아니오
35.	사람을 볼 때 우선 재능이 있는지를 본다.	.30
39.	한 곳에 있으려고만 하지 나다니려하지 않는 편이다.	.34
44.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51
51.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	.51
57.	안절부절 못 할 때가 많다.	.38
61.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한다.	.31
70.	보답을 주로 받으려고 하지, 남에게 보답하기는 인색한 편이다.	.41
75.	매사에 몸을 사리는 편이다.	.42
84.	말로는 서로 툭 터놓고 지내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툭 터놓고 지내는 것을 꺼린다.	.34
93.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	.35
101.	평소 손, 발이 따뜻한 편이다.	.32 아니오

3. 各 尺度의 信賴度

四象 尺度別 內的一致度(=信賴度係數 Cronbach's α)⁴⁾는 大略 0.70 以上이면 良好하다고 判斷하는데, 表 10.에 提示된 바와 같이 0.7155 以上으로 매우 良好한 便이고, 被檢者에게 2週日 間隔으로 實施한 再檢査에 따른 檢査-再檢査信賴度는 太陽尺度가 0.8871, 少陽尺度가 0.9350, 太陰尺度가 0.7457, 少陰尺度가 0.8543으로 $P < 0.01$ 水準으로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差異를 보였다.

表 10. 四象 尺度들의 內的一致도와 檢査-再檢査信賴度

尺度名	問項갯수	內的一致度(Cronbach's α)	檢査-再檢査信賴度
太陽尺度	16	0.7908	0.8871**
少陽尺度	17	0.8111	0.9350**
太陰尺度	10	0.7155	0.7457**
少陰尺度	16	0.7750	0.8543**

** : $P < 0.01$

4. 男女集團別 四象尺度別 間 相關係數

男女別 四象體質의 4個尺度間 相關 構造를 알아본 結果를 表 11.에 提示하였다. 먼저 男子集團의 相關構造를 살펴보면 太陽尺度는 少陽尺度와 0.63의 正的 相關(Positive Correlation)을 보였다. 이 두 相關程度를 $P < 0.01$ 이 水準에서 有意味한 것으로 나타났다. 少陽尺度와 0.23의 否的機關을 보였으며, 太陰 및 少陰尺度와는 各各 -0.57, -0.42의 否的相關(Negative Correlation)을 보였다. 이 두 相關程度는 $P < 0.01$ 水準에서 有意味한 것으로 나타났다. 少陽尺度는 太陰尺度와 0.23의 否的相關을 보였으며, 太陰尺度는 少陰尺度와 0.55의 正的相關을 보였다. 이러한 相關構造는 四象體質 分類理論에 依해 豫見되었던 바와 大體

로 一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女子集團의 相關構造는 豫想하지 못했던 結果를 나타냈다. 즉 太陽尺度는 少陽尺度와 0.70의 正的相關을 보였고, 太陰尺度와는 -0.31의 否的相關을 보였으나 少陰尺度와는 거의 相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少陽尺度와 太陰尺度 사이에는 쉽게 豫想될 수 있는 否的相關을 나타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少陰尺度와는 0.52의 正的相關을 보여, 女子의 경우 少陽尺度가 少陰人 女子에게서 보다 자주 提示되는 等 理論的으로 期待되었던 相關構造를 갖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QSCC設問紙가 女子의 體質을 鑑別하기에는 不足한 面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表 11. 男女 集團別 4個 四象尺度 間 相關係數

(上段:男, N=139, 下段:女, N=81)

	太陽尺度	少陽尺度	太陰尺度	少陰尺度
太陽尺度		0.6263**	-0.5740**	-0.4214**
少陽尺度	0.6990**		-0.2330**	0.1509
太陰尺度	-0.3104*	0.1553		0.5489**
少陰尺度	0.0088	0.5241**	0.6973**	

* : $P < 0.05$ ** : $P < 0.01$

5. 세 集團의 尺度別 變量分析度

韓方 專門醫가 診斷한 集團의 結果와 QSCC上의 새로운 尺度에 對한 平均과 標準偏差 및 F檢證結果는 表12.와 같다. 여기서는 男女集團別 四象尺度間의 相關關係의 分析結果에 따라 設問紙의 特性이 男子의 體質 鑑別에만 有用한 것으로 보고, 女子를 除外한 男子 集團만을 對象으로 分析하였다.

이 結果를 살펴보면 少陽人集團이 다른 두 集團보다 가장 큰 離脫 點數를 보인 尺度는 太陽 尺度이고, 그 다음이 少陽 尺度였다. 太陰人集團이 다른 두

集團보다 가장 큰 離脫 點數를 보인 尺度는 太陰 尺度이고, 少陰人 集團이 가장 큰 離脫 點數를 보인 尺度는 少陰人 尺度였다. 따라서 本 QSCC 設問紙에 收錄된 問項들은 診斷辨別力이 認定되는 尺度들이라 하겠다.

이 結果를 尺度別로 살펴보면, 太陽尺度에서 少陽人 集團은 $P < 0.01$ 水準에서 統計적으로 有意味한 差異를 보였다.

太陰人 集團은 太陰尺度에서 제일 높은 平均을 보였으며, 個別 分析에서 少陽人 集團과의 사이에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少陰人 集團은 비록 統計적으로는 有意味한 差異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平均상으로 其他 두 集團에 비해 가장 높은 點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結果들로 미루어 볼 때 QSCC로 四象體質을 豫測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고 하겠다.

6. 體質鑑別을 爲한 尺度의 判別分析 結果

體質鑑別을 하기 爲하여 QSCC에서 構成된 새로운 尺度가 分類正確率을 얼마만큼 增加시키게 되었는지에 對하여 알아보고자, QSCC의 4個 尺度

로 體質 分類를 豫測한 判別分析結果를 表 13.에 提示하였다.

모든 資料는 分析에 들어가게 前에 判別函數式을 適用하였다. 이러한 判別分析을 할 때 使用된, 統計處理方式에 依해 導出된 判別函數式을 보면, 判別方程式 1 $D = -1.6788 + 0.0765 \times \text{太陽} + 0.0504 \times \text{少陽} - 0.2860 \times \text{太陰} + 0.4129 \times \text{少陰}$, 判別方程式 2 $D = -2.1118 + 0.2654 \times \text{太陽} + 0.1414 \times \text{少陽} + 0.0080 \times \text{太陰} + 0.0319 \times \text{少陰}$ 이 되는데, 이 中 判別方程式 1 이 Wilks' Lamda, χ^2 -值 및 自由度를 考慮한 有意度가 0.04로서 判別式2 보다 重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判別函數에 對한 集團 中央值는 判別函數式 1에서는 太陰集團이 -0.45, 少陽集團이 -0.04, 少陰集團이 0.43이며, 判別函數式 2에서는 太陰集團이 -0.20, 少陽集團 0.75, 少陰集團이 -0.12로 되었는데, 이러한 判別函數式과 集團中央值를 通하여 此後에 QSCC를 利用한 四象體質鑑別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資料를 좀 더 늘이고 問項을 補完하여 正確判別率을 높이는 判別方程式의 開發이 繼續해서 研究되어야 하겠다.

表 12. 세 集團의 四象尺度別 平均과 標準偏差 및 F-檢證 結果

尺度名 \ 集團	少陽人 N=8	太陰人 N=17	少陰人 N=16	F 值	個別 Scheffe 檢證
太陽尺度	8.00 (3.55)	4.24 (2.49)	4.81 (2.54)	5.42**	少陽 > 太陰, 少陰
少陽尺度	5.88 (2.70)	3.12 (1.87)	4.13 (2.90)	3.39ns	
太陰尺度	3.25 (2.12)	4.71 (1.99)	4.13 (2.06)	1.40*	太陰 > 少陽
少陰尺度	4.00 (2.56)	4.53 (3.37)	6.00 (3.39)	1.32ns	

* : $P < 0.05$ ** : $P < 0.01$

()안은-標準偏差

ns : no>significance

表 13. 四象 尺度를 利用한 判別分析 結果

判別方程式 1 $D = -1.6788 + 0.0765 \times \text{太陽} + 0.0504 \times \text{少陽} - 0.2860 \times \text{太陰} + 0.4129 \times \text{少陰}$ 判別方程式 2 $D = -2.1118 + 0.2654 \times \text{太陽} + 0.1414 \times \text{少陽} + 0.0080 \times \text{太陰} + 0.0319 \times \text{少陰}$

Fcn	Wilks' Lamda	χ^2 -值	自由度	有意度
1*	0.7591	16.124	8	0.040
2*	0.8887	6.905	3	0.750

豫言 集團					集團 中央 值		
	太陰	少陽	少陰		集團	FUNC 1	FUNC 2
實際 集團	太陰 (25)	15 (60.0%)	3 (12.0%)	7 (28.0%)	太陰 :	-0.45	-0.20
	少陽 (11)	3 (27.3%)	7 (63.6%)	1 (9.1%)	少陽 :	-0.04	0.75
	少陰 (27)	8 (29.6%)	6 (22.2%)	13 (48.1%)	少陰 :	0.43	-0.12
	正確判別率 : 55.56%						

分析 結果에 따르면, 正確判別率이 3個 集團의 偶然 確率 37%에 비해 約 20%의 增進을 보여 四象體質 分類를 爲해 充分한 情報 提供의 價値가 있으므로, 客觀的 設問調査로서의 有用性을 示唆하였다. 特히 太陰人集團과 少陽人集團의 判別力은 60% 以上으로 良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少陰人集團은 다소 未洽하여 補完 作業이 要求된다고 하였다.

이 結果를 要約하여 說明하자면 太陰人으로 診斷받은 사람이 設問結果上으로 太陰人이 될 確率은 60.6% 少陽人으로 診斷받은 사람이 設問상으로도 少陽人이 될 確率은 63.6%로 매우 良好한 正確判別率을 보였고, 少陰人으로 診斷받은 사람이 設問上으로도 少陰人이 될 確率은 48.1%로 平均正確判別率을 55.56%로 낮추는 要因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으로 要約할 수 있다.

7. 判別函數와 4個 尺度 間의 相關係數

判別函數와 各 尺度 間의 關係를 通해서 各 函

數에 크게 寄與하는 尺度가 무엇인지 알아 본 結果를 表 14. 에 提示하였다. 이것에 따르면 判別函數 1은 少陰尺度와 높은 相關關係를 보였고, 判別函數2는 太陽尺度, 少陽尺度 및 太陰尺度와 높은 相關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結果는 少陰尺度가 QSCC의 結果上 體質鑑別에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하는 것을 意味한다. 그렇지만 少陰尺度는 本來의 目的인 少陰人의 體質鑑別을 爲한 正確判別率에 있어서는 滿足스럽지 못한 것으로 表 10.의 結果를 통하여 分析된 바 있다.

表 14. 判別函數와 豫測變因 間의 相關係數

	FUNC 1	FUNC 2
少陰尺度	0.65*	-0.63
太陽尺度	0.12	0.94*
少陽尺度	0.21	0.72*
太陰尺度	-0.21	0.38*

* : P < 0.01

IV. 總括 및 考察

分析에서 나타난 結果들을 土臺로 새로 構成된 4個 尺度에 對한 心理測定的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太陽尺度에서는 거의 모든 問項이 滿足할 만한 問項適格度를 보였다. 特히, “예의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0.59),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0.58)는 問項適格度가 比較的 높은 問項들이다. 信賴度 係數는 $\alpha=0.79$ 로서 問項들 間의 內的一致度가 높고, 檢査-再檢査 信賴度는 0.89로 時間 經過에 對해 安定的인 尺度라고 하겠다.

둘째, 少陽尺度에서는 거의 모든 問項이 0.58~0.24까지의 滿足할만한 問項 適格度 水準을 보였다. 內的一致度는 Cronbach's $\alpha=0.81$ 로서 매우 良好하며 檢査-再檢査 信賴度는 0.93으로 時間의 經過에 影響을 받지 않는 매우 安定的인 尺度라 할 수 있다.

세째, 太陰尺度는 앞의 두 尺度에 비해 다소 問項適格度가 낮은 便이나 內的一致度가 0.71로 比較的 良好하여 尺度 構成에 큰 問題는 없는 것으로 生覺된다. 또한 檢査-再檢査 信賴度는 0.75로 良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少陰尺度는 모든 問項에서 0.24~0.51의 比較的 良好한 問項適格度를 보였으며, 內的一致度는 0.78로 滿足할 만한 水準이다. 또한 檢査-再檢査 信賴도가 0.85로 時間의 經過에 의해 影響받지 않는 安定的인 尺度라 生覺된다.

男女別 四象體質의 4個尺度 間의 相關 構造를 알아 본 結果에서 먼저 男子集團의 相關構造를 살펴보면, 太陽尺度는 少陽尺度와 0.63의 正的 相關을 보였으며, 太陰 및 少陰尺度와는 各各 -0.57, -0.42의 否的 相關을 보였다. 이 두 相關의 程度는 $P < 0.01$ 水準에서 有意味한 것으로 나타났다. 少

陽尺度는 太陰尺度와 -0.23의 否的 相關을 보였으며, 太陰尺度는 少陰尺度와 0.55의 正的 相關을 보였다. 이러한 相關 構造는 四象體質 分類 理論에 의해 豫見되었던 바와 大體로 一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女子集團의 相關 構造는 豫想하지 못했던 結果를 나타냈다. 즉 太陽尺度는 少陽尺度와 0.70의 正的 相關을 보였고 太陰尺度와는 -0.31의 否的 相關을 보였으나 少陰尺度와는 거의 相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少陽尺度와 太陰尺度 사이에는 쉽게 豫想될 수 있는 否的 相關을 나타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少陰尺度와는 0.52의 正的 相關을 보여 理論적으로 期待되었던 相關構造를 갖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專門醫가 臨床적으로 診斷한 少陽人集團과 太陽人集團 및 少陰人集團이 QSCC의 各 體質尺度에서 보인 點數의 平均과 標準偏差 그리고 이들 세 集團間 平均 差異를 變量分析한 結果를 살펴보면, 少陽集團은 太陽尺度와 少陽尺度 모두에서 太陰人 및 少陰人集團에 비해 平均値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特히 太陽尺度에서 少陽人集團은 $P < 0.01$ 水準에서 統計적으로 有意味한 差異를 보였다.

太陰人集團은 太陰尺度에서 제일 높은 平均을 보였으며, 個別 分析에서 少陽人集團과의 사이에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少陰人集團은 비록 統計적으로는 有意味한 差異를 보이지 않았으나 平均上으로 其他 두 集團에 비해 가장 높은 點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結果들로 미루어 볼 때 QSCC로 四象體質을 豫測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고 하겠다.

QSCC의 4個尺度로 體質 分類를 豫測한 判別分析 結果를 살펴보면, 正確判別率이 3個 集團의 偶然確率 37%에 비해 約 20%의 增進을 보이므로써, QSCC가 四象體質 分類를 爲한 客觀的 設問 調查로서 有用性이 있음을 示唆하였다. 特히 太陰

人集團의 判別力은 60% 以上으로 良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少陰人集團은 다소 未洽하여 補完 作業이 要求된다고 하겠다.

本 QSCC의 調査 및 分析 過程에서 韓方 專門醫에 依해 太陽人으로 分類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分析 過程에서 太陽人에 對한 內容은 施行되지 못하였다.

V. 結論 및 提言

1. 結論

著者は 臨床的으로 應用이 可能한 體質鑑別의 客觀的인 基準을 마련하고자, 統計分析에 依한 豫備研究를 거친 問項들로 構成된 設問 形式의 檢査方法인 四象體質分類檢査(QSCC)를 開發하였다. 이렇게 開發된 QSCC의 臨床的 活用 價値와 體質鑑別을 爲한 情報 提供의 寄與度를 알아 보고자, 一般 患者와 大學生을 包含한 總 241名을 對象으로 設問 調査를 實施한 다음, 同一人 220名을 對象으로 2週日 後에 再檢査를 實施하였다.

以上の 結果를 統計 處理하여 信賴度와 妥當度를 檢討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本 QSCC 設問紙는 韓方 專門醫에 依하여 體質 鑑別 診斷을 받은 세 集團의 尺度別 變量 分析 結果, 診斷辨別力이 認定되는 問項들로 構成되어 있다.

2) QSCC의 準據 妥當度 分析結果 太陰人과 少陽人을 鑑別하는 道具로서는 比較的 良好하지만 (太陰人 60.0%, 少陽人 63.6%), 少陰人을 鑑別하기에는 未洽하다(少陰人 48.1%).

3) 少陰尺度가 QSCC의 結果上 體質鑑別에 있어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한다. 그렇지만, 少陰尺度 本來의 目的인 少陰人의 體質 鑑別을 爲한 正確

判別率에 있어서는 滿足스럽지 못하다.

4) 設問紙의 特性이 男子의 體質 鑑別에는 有用하지만 女子에게서는 뚜렷한 特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5) QSCC를 利用하면 四象體質을 豫測할 수 있다.

2. 提言

1) 體位 尺度를 包含하고도 準據妥當度를 높일 수 있는 方法에 對한 研究가 追後에 繼續되어야 한다.

2) 除外된 問項의 內容을 다시 여러 形態로 變形하여 다른 表現을 構想하고, 反復하여 仔細히 물어 봄으로써 信賴度를 높이는 作業을 施行한 다음, 다시 設問 問項에 包含시키므로써 原文上의 體質內容이 可及的 빠짐없이 包含될 수 있도록 하는 努力이 必要하다.

3) 問項의 適格度에 따른 採點上의 比重 賦與 方法이 研究되어야 한다.

4) 女子는 다른 方法으로 體質 鑑別을 할 수 있는 研究가 必要하다.

5) 設問 調査時 標本集團의 構成에 따른 層化標集別 統計分析研究가 要望된다.

6) 原文에 各 體質 特性이라고 表現되어 있지는 않지만, 現在 各 體質人들이 보이는 反應 特性으로 再分類된 問項들은 새로운 尺度이므로 各 尺度의 經驗的 妥當化 檢證이 要望된다.

7) 資料를 좀 더 늘리고 問項을 補完하여 正確 判別率을 높이는 判別方程式의 開發이 繼續해서 研究되어야 한다.

8) 四象人의 體質鑑別은 東醫壽世保元의 人間 形成 原理에 依한 醫哲學에 根本을 두고 鑑別되어야 한다고 思料된다.

參考文獻

1. 權英植:四象方藥合編, 서울 杏林書院, pp.37-42, 1973.
2. 朴寅商:東醫四象要訣, 서울 杏林書院, pp.3-6, 1974.
3. 李炳幸:鍼道遠流重磨, 서울, 杏林書院; pp.347-348, 1974.
4. 李乙浩:洪淳用:四象醫學原論, 서울, 壽文社, pp.36-92, 1973.
5. 李濟馬:格致叢, 서울, 太陽社, pp.11-386, 1985.
6. 李濟馬: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書院, p.11, 1963.
7. 韓東錫: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pp20-29, pp.57-100, 1967.
8. 高炳熙:宋一炳:四象體質辨證 方法論研究 (第一報), 大韓韓醫學會誌, Vol.8, No.1, pp.139-160, 1987.
9. 權度沅:大韓韓醫學會報 二十一號, pp.32-38, 1966.
10. 權英植:四象鑑別法에 對하여, 서울, 醫林社, 통권97호, p. 15-20, 1973.
11. 金樹凡:四象體質鑑別을 爲한 專門家 시스템의 知識베이스 構築을 爲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9.
12. 朴奭彥:四象頭部觸診法, 서울, 醫林社, 통권 147호, pp.62-64, 1982.
13. 許萬會:四象人의 形態學的 圖式化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1.
14. Marija J. Norusis:SPSS/PC, Chicago, SPSS Inc., pp.153-175, 1986.
15. Marija J. Norusis: Advanced Statistics, Chicago, SPSS Inc., pp.1-39, 1986.

註

- 1) 信賴度 : 信賴度에 對한 定義는 다음과 같은 質問으로 要約된다. 測定 道具를 反復하여 測定하였을 때 同一하거나 서로 비슷한 結果를 얻을 수 있겠는가? 測定 道具로 부터 얻은 測定值가 測定된 屬性의 實際 測定值인가? 測定 道具에 存在하는 測定 誤差가 相對的으로 不在한가?
- 2) 問項適格度 : 設問紙 上의 問項 中에서 어는 한 尺度에 該當되는 問項이 있을 때, 그 問項이 測定하고자 하는 尺度를 說明할 수 있는 程度를 點數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問項 適格度가 .40이라면 40%의 變量을 說明하는 것이라고 解析할 수 있다. 즉 各 尺度의 總點數가 나타내고자 하는 特性을 한 問項이 얼마나 잘 反映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는 統計值이다.
- 3) 妥當度 : 妥當度에 對한 定義는 測定하고자 하는 것을 實際로 測定하고 있는가 하는 質問으로 나타낼 수 있다.
- 4) 信賴度係數 Cronbach's α

$$= (\text{ 전체변량}(Vt) - \text{오차변량}(Ve)) / \text{전체변량}(Vt)$$

ABSTRACT

A Validation Study of 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QSCC)

Sun Ho Kim, Byung-Hee Ko, Il-Byung Song
Dept. of Coustitutional Medicin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ation of four scales of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QSCC), newly constructed through statistical item analysis and to examine their diagnostic discrimination power.

QSCC was administered to 105 inpatient at Kyung-Hee Oriental Medicine Hospital and local oriental clinics and 136 undergraduated students. 2 weeks later, QSCC was readministered to 220 same subjects. Data were collected during about 2 months from february to Apr. 20, 1992.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internal consistancy, test-retest reliabilit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discrimination analysis of spss pc+ v3.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reliability of four scales of QSCC was relatively favorable. The internal consista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of Tae-Yaung-In(太陽人) scale were respectively Cronbach's $\alpha=0.79$ and $r=0.89$. Those of So-Yaung-In(少陽人) scale were respectively $\alpha=0.81$ and $r=0.93$. Those of Tae-Em-In(太陰人) scale were respectively $\alpha=0.72$ and $r=0.74$. Those of So-Em-In(少陰人) scale were respectively $\alpha=0.81$ and $r=0.93$.

2. The diagnostic discrimination abilities(Hit-ratio=56%)of QSCC were found to have more about 20% improvement than propotional chance criteria(37%). Especially, Hit-ratios for So-Yaung-In(63%) and Tae-Em-In(60%) were more high than that for So-Em-In(48%)

3. For male subjects, the construct validity of QSCC was founded to be relatively favorable. But that of QSCC for females was poor.

사상 체질 분류 검사(QSCC)
(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 본 검사는 귀하의 체질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질문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것입니다. 체질이란 사람마다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 본 검사의 결과는 개인의 상담이나 집단적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므로 타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에 답하는 요령

1. 다음 페이지의 설문 문항을 주의깊게 읽은 다음, 자신이 일상적으로 느끼고 행동하는데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V)표를 하십시오. (여러 개를 표시해도 무방하며, 해당사항이 없으면 그냥 두십시오)
2. 말의 여운이나 외모보다 그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3. "의식적"으로 일관성있게 응답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응답하도록 하십시오.
4. 시간제한은 없으나 어느 한 문항을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5. 다른 사람의 판단에 구애받지 마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답을 선택하십시오.
6. 대답하는 요령에 의문에 있으시면 지금 검사자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용모

- 1 () 키가 큰 편이다.
- 2 () 보통이다.
- 3 () 키가 작은 편이다.
- 4 () 뚱뚱한 편이다.
- 5 () 보통이다.
- 6 () 마른편이다.
- 7 ()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 8 () 하체가 상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 9 () 상하체가 비슷하다.
- 10 () 평소에 잔병치레가 없다.
- 11 () 민첩하고 용감하다.
- 12 () 의젓하고 위엄이 있다.
- 13 () 단정하며 꼼꼼하다.

일처리와 장점

- 14 () 월급생활보다 수입이 다소 불규칙하더라도 목돈 버는 일이 좋겠다.
- 15 ()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 16 () 처음 만난 사람도 쉽게 사귀는 편이다.
- 17 ()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 18 () 매사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편이다.
- 19 ()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내는 편이다.
- 20 () 진득하게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
- 21 ()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 22 () 주로 가까운 사람끼리 잘 어울린다.
- 23 () 친구 사귄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귄다.
- 24 () 집안일은 소홀히 하면서 바깥일에 열심이다.
- 25 () 바깥일은 소홀히 하면서 집안일에 열심이다.
- 26 () 친구를 사귄데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

대인 관계

- 27 () 포용력이 있어서 잘 받아 들이는 편이다.
- 28 () 예의와 격식을 잘 차리는 편이다.
- 29 () 남을 잘 가르치고, 설득력이 있는 편이다.
- 30 () 다정 다감하여 남을 잘 달랜다.
- 31 ()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
- 32 () 사람을 볼 때 우선 올바른 사람인지 아닌지를 본다.
- 33 () 사람을 볼 때 우선 학력을 본다.
- 34 () 사람을 볼 때 우선 근면성을 본다.
- 35 () 사람을 볼 때 우선 재능이 있는지를 본다.

일처리

- 36 () 무슨 일이든지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간다.
- 37 () 일을 벌려 놓기만 하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다.
- 38 ()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 39 () 한 곳에 있으려고만 하지 나다니려하지 않는 편이다.
- 40 () 나는 무슨 일이건 철저히 하는 성미다.

평소의 마음

- 41 () 항상 성급한 편이다.
- 42 () 일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
- 43 ()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 44 ()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 45 ()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 46 () 이것저것 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 47 ()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문제점

- 48 () 친구는 많지만 막상 속을 터놓을 사람 없어 속상할 때가 많다.
- 49 () 밖으로 나들다 보니 집안에 문제가 많다.
- 50 () 집안 일을 중요시 하다 보니 사회생활에 어려울 때가 많다.
- 51 () 사람 사귀는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
- 52 ()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
- 53 ()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감정특성

- 54 () 화를 잘 내는 편이다.
- 55 () 슬퍼질 때가 많다.
- 56 () 마음이 상했더라도 괜찮은 척 한다.
- 57 () 안절부절 못 할 때가 많다.

행동특성

- 58 () 예의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 59 () 아는 척 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
- 60 () 돈이나 물건에 욕심이 많은 편이다.
- 61 ()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한다.
- 62 ()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편이다.
- 63 () 매사에 능수능란한 편이다.
- 64 () 점잖은 척 할 때가 많다.
- 65 () 이익을 위해서는 때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 66 () 일 할때 주위에서 어지간히 소란해도 잘 할 수 있다.
- 67 ()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을 잘 시키는 편이다.

- 68 () 자신은 인정 받기를 원하면서 남을 소홀히 여기는 편이다.
- 69 () 자신의 체면과 권위는 따지면서 남에게는 그렇지 못한 편이다.
- 70 () 보답을 주로 받으려고 하지, 남에게 보답하기는 인색한 편이다.
- 71 () 사람을 설득 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온다.
- 72 () 그다지 공손하지 않은 편이다.
- 73 ()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편이다.
- 74 () 나의 일이 아닌 것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 75 () 매사에 몸을 사리는 편이다.

속마음

- 76 () 남의 생각이나 업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 77 () 남을 업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 78 () 남의 것을 탐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 79 ()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80 () 말로는 일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것을 꺼린다.
- 81 () 말로는 서로 의지하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것을 꺼린다.
- 82 () 말로는 서로 욕심내지 말자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청렴함을 원한다.
- 83 () 말로는 서로 욕심내지 말자고 하면서도 실제로 나 자신의 욕심은 많은 편이다.
- 84 () 말로는 서로 툭 터 놓고 지내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툭 터놓고 지내는 것을 꺼린다.
- 85 () 일을 성취하였어도 항상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 86 () 남의 일에 열심이면서도 항상 부족감을 느낄 때가 많다.

- 87 () 풍족한 상태에서도 항상 부족감을 느껴 더 가지려 한다.

- 88 () 일이 어느 정도만 이루어져도 만족할 때가 많다.

꺼리는 사람

- 89 () 나는 너무 예의 차리는 사람을 꺼린다.
- 90 () 나는 너무 점잖은 척 하는 사람을 꺼린다.
- 91 () 나는 너무 의리를 내세우는 사람을 꺼린다.
- 92 () 나는 너무 아는 척 하는 사람을 꺼린다.
- 93 ()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

몸상태

- 94 () 몸이 불편할 때는 주로 목주위에 이상이 온다.
- 95 () 몸이 불편할 때는 주로 가슴에 불편한 증세가 온다.
- 96 () 몸이 불편할 때는 주로 배꼽주위에 불편한 증세가 온다.
- 97 () 몸이 불편할 때는 주로 아랫배에 불편한 증세가 온다.
- 98 ()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 99 () 시원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 100 () 평소 손, 발이 찬 편이다.
- 101 () 평소 손, 발이 따뜻한 편이다.

내 몸 상태가 가장 좋은 때는

- 102 () 소변량이 많고 시원하게 나올 때이다.
- 103 () 대변이 잘 나올 때이다.
- 104 () 땀을 흘리고 났을 때이다.
- 105 () 소화가 잘 될 때이다.

* 다음 내용 중에서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의 번호를 순서대로 ()에 쓰십시오.

사는데 있어서 나는 그래도;

- (1) 권세를 중요시 여기는 편이다.
 - (2)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편이다.
 - (3) 돈과 재물을 중요시 여기는 편이다.
 - (4) 안정된 지위를 중요시 여기는 편이다.
- (, , ,)

답안지 1

실시날짜

No. _____

성 명 _____

성 별(1.남, 2.여) 만 __세

결혼상태:

- 1.기혼 2.미혼 3.별거
- 4.사별 5.이혼 6.동거

교육:

- 1.국졸이하 2.중졸 3.고졸 4.대학이상

직업:

- 1. 사무및 행정직 2. 연구및 전문직
- 3. 사기업 경영 4. 법무 관계직
- 5. 의료보건직 6. 공업및 기술직
- 7. 종교 관계직 8. 보안업무직
- 9. 농수산업 10. 예술및 체육
- 11. 서비스직 12. 가정주부
- 13. 단순노무직

* 해당되는 문항에 (V)표를 하십시오.

답안지2

* 아래 부위는 검사자가 기록하는 곳이므로 아무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체격(Cm)

- 1. 신장(바닥에서 머리마루점까지 길이) _
- 2. 머리둘레(눈살점과 뒤통수점 지나는 둘레) _
- 3. 겨드랑이 둘레(양겨드랑이 지나는 수평둘레) _
- 4. 유두부 둘레(양젖꼭지 지나는 수평둘레) _
- 5. 허리둘레(배꼽지나는 수평둘레) _
- 6. 둔 위(엉덩이의 가장 긴 수평둘레) _

객관평가

- 1. 체격
- 1. () 머리가 크고 목부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허리가 빈약하다.
- 2. () 가슴이 잘 발달되어 있고, 엉덩이가 빈약하다.
- 3. () 배가 잘 발달되어 있고, 목 부위가 빈약하다.
- 4. () 엉덩이 부위가 잘 발달되어 있고, 가슴부위가 빈약하다.

2. 외모

- 1. () 평소 잔병치레가 없고, 키가크고 마른편이다.
- 2. () 가슴이 발달되고 하체가 날씬하며, 민첩하고 용감하다.
- 3. () 체구가 크고 살집이 있고, 의젓하며 위엄이 있다.
- 4. () 체구가 작고, 단정하며 꼼꼼하다.

3. 체질

- 1. 태양 2. 태음 3. 소양 4. 소음

4. Somatoform Disorder 부위

- 1. () Chest 2. () Upper Abdomen
- 3. () Low Abdomen

5. Normal Control